「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3호(2020 가을): 163-179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4 No.3 (2020 Autumnr
http://dx.doi.org/10.20484/klog.24.3.8

삼봉 정도전의 행정개혁에 기반이 되는 심리학적 요인 분석*

김 진 아**
김 형 빈***

국문요약

본 연구는 조선의 개국공신이자 법·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행정개혁가 삼봉 정도전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내면의 어떠한 요소들이 그의 행정개혁에 기반이 될 수 있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삼봉의 행적과 행정개혁에 기반이 되는 그의 심리학적 요인들을 밝혀 삼봉을 심도있게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문헌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TCI 기질 및 성격 검사, MBTI 성격유형검사, 심리학적 사례분석 틀을 이용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의뢰하여 검증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삼봉이 지닌 NhR(HLH)기질유형, ScT(HLH)성격유형, ESTJ(외향적 사고형)성격유형과 삶의 경험 즉 환경적 요인을 토대로 행정개혁사상인 민본, 애민, 안민사상, 재상주의가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정치, 사회, 경제, 군사, 시, 음악, 문학, 문화, 예법, 철학, 행정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행정개혁을 이루어나갈 수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토대로 미래 한국사회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정도전, 행정개혁가, 기질, 성격, 심리학적 분석

Ⅰ. 서론

시대는 문자가 없는 선사시대와 문자가 있는 역사시대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역사시대 중에서 중세, 근세, 근대시대를 걸치고 신(新)·구(舊)의 변화를 아우르는 시기가 조선시대(1392～1910)이다. 1대 태조부터 마지막 27대 고종까지 약 500년을 이어오면서 개혁과 혁명으로 나라를 움직였던 수많은 인물들이 존재한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던 인물, 이타적인 목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던 인물, 나라를 위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인물, 나라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인물 등...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에 사회 구조적으로, 민족의 사상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다양한 인물들의 외적인 삶과 내적인 역동들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옛 인물들을 고찰하는 이유 중

* 본 연구는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주저자
*** 교신저자

하나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이란 사자성어처럼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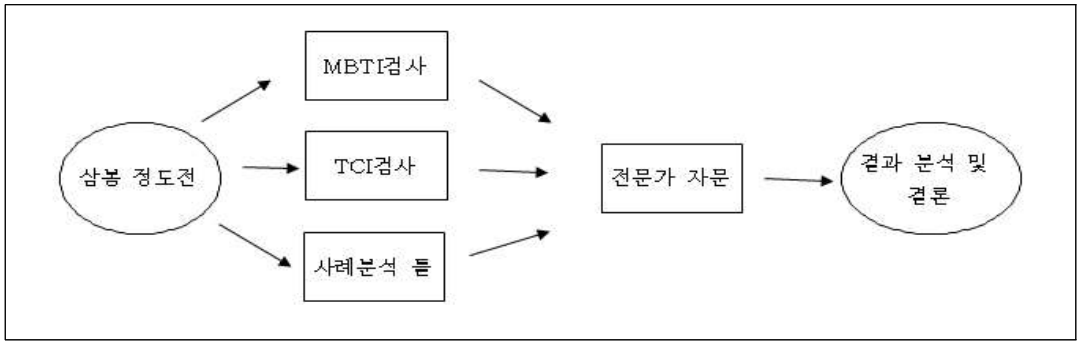
'조선'이란 새 나라를 창업한 대표적인 개국공신은 태조 이성계와 삼봉 정도전을 꼽는다. 태조 이성계를 조선시대 첫 왕으로 세운 '장량'과 같은 인물이 바로 삼봉 정도전이다. 삼봉은 난세(亂世)의 고려말기 무렵, 젊은 성인기시절을 보내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결국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건국하기에 이른다(나중식, 2012; 김진아, 2020). 지금까지 '삼봉 정도전'에 관해 연구되어 온 내용들을 찾아보면 삼봉의 업적과 관련된 생애사와 행적들, 삼봉의 저서와 사상에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로 '삼봉'이란 사람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인간의 의식적인 행동과 무의식적인 행동은 많은 내적 역동들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삼봉의 드러난 행적과 업적들로만 그를 아는 것보다 무엇이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했는지 인간의 근간이 되는 내적 요소들을 살펴서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삼봉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람의 행동은 생물학적으로 뉴런과 신경전달물질 등인 뇌 기능과 심리학적으로 지능, 정서, 무의식적 동기, 성격, 신념 등에 의해 실행된다(윤가현 외, 2008). 즉 내면의 여러 기능들이 연결되어 행동으로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적과 업적의 내용들로만 한 인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사람의 행동을 보여지는 외적 요소들만 고려해서 판단하기보다 행동이 왜 그렇게 나타났는가,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내적인 요소들, 환경적인 요소들을 종합하여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검사도구와 전문가 자문을 이용하여 심리학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봉 내면의 어떠한 요소들이 행정개혁의 기반이 되어 업적을 만들어 내게 했는지 심리학적 요인들을 밝혀 삼봉을 심도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즉, 삼봉의 내적 특성인 기질과 성격 및 심리학적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의 2장에서 기질, 성격, 행정개혁과 선행연구 등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삼봉의 시대적 배경과 생애사, 업적 등에 대한 행태분석을 중심으로 기질과 성격 및 심리학적 분석 도구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의뢰하여 검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4장 결론을 도출하고자한다. 연구의 과정을 모형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1) 본 연구는 김진아(2020)의 박사학위논문의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는데, 인간의 내적 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구로 브릭스와 마이어스(Briggs & Myers)가 개발한 MBTI 성격검사, 클로닌저(Cloninger)가 개발한 TCI 기질 및 성격검사, 심리학적 사례분석 틀을 사용한다. 또한 연구방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의뢰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모형



Ⅱ. 이론적 배경

1. 기질과 성격

기질(Temperament)에 대해 올포트(Allport, 1961)는 '각 개인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이고 유전적인 정서의 본질'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외에 여러 학자들은 기질을 '각 개인이 가지는 특징이고 생물학적이며 유전적으로 타고난 정서의 본질 또는 성격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기질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대처하는 정서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개개인마다 행동과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밝혔다(Allport, 1961; Thomas & Chess, 1977; Rothbart & Derryberry, 1981; Buss & Plomin, 1984a; Cloninger et al., 1994).

인간의 기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개인의 행동과 성격,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므로 검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EAS기질척도, IBQ-R척도, ECBQ척도, CBQ척도, PTQ척도, RITQ기질척도, DOTS-R기질차원척도 등 여러 기질척도 중에서도 TCI(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기질 및 성격검사는 Cloninger 외(1994)의 심리생물학적 인성모델에 근거를 두고 확장된 기질과 성격검사이다. Cloninger의 인성모델은 쌍생아(쌍둥이), 종단발달, 신경약물학, 발생학, 진화론, 신경 해부학, 신경 행동학, 생리측정학, 정신과학, 유전학, 인문사회학등의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졌고, 이러한 생리심리사회이론(Biopsychosocial Theory)을 기초로 TCI검사가 개발되었다(Cloninger et al., 1994).

융(Jung, 2016)은 성격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 주는 사고와 감정, 행동양식' 이라 하였고,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타인과 구분해 주는 개인의 독특한 양식이며 기질을 바탕으로 환경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이라 김진아(2020)는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성격은 연구내용에 따라 퍼스널리티(Personality)와 캐릭터(Character)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면'을 의미하는 페르조나(Persona)에 어원을 둔 퍼스널리티(Personality, 인성)를 사용하지 않고, 형질(形質)에 의미를 부여한 캐릭터(Character)를 사용하고자 한다. 즉, 성격(Character)은 유전적 특성과 일생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성질인 기질(Temperament)을 바탕에 두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일생동안 발달하는 성질을 지닌다. 또한 기질에 의해 나타나는 자동적인 정서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민병배 외, 2007; 이수진 외, 2014).

16PF검사, EQP검사, NEO-PI검사, MMPI검사 등 여러 성격검사들 중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성격검사는 분석심리학자 융(Jung)의 심리유형이론을 토대로 브릭스와 마이어스(Briggs & Myers)에 의해 개발된 성격유형검사이다. Jung의 심리유형론은 인간의 '자기'완성을 무의식과 의식의 조화로 보고 의식과 무의식적 요소들 간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독특한 내적 기능과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일반적인 태도(내향, 외향)과 정신기능(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으로 분류하였다. Briggs & Myers는 이를 발전시켜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외향형-내향형으로 나누고, 인식기능에 따라 감각형-직관형으로 나누었다. 판단기능에 따라 사고형-감정형으로 나누고, 생활양식에 따라 판단형-인식형으로 나누어 16가지의 성격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MBTI 성격검사를 고안해 내었다(김정택·심혜숙, 2015; Jung, 2016).

2. 행정개혁

국가의 살림살이를 행정이라 말할 수 있다. 국가는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이므로 행정은 '공공성'과 '합리성'이 핵심이 된다. 행정을 국가의 살림살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통치과정 중에서 정치가 이론적 과정이고, 행정이 실무적 과정이므로 국가가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실질적 업무를 실행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행정에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상황이 바뀌고 그에 따라 구성원들의 가치관, 신념, 태도 등에도 변화가 일어나므로(최창호·하미승, 2012; 김진아, 2020), 그들의 요구에 맞추어 국가의 살림살이도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집단과 변화하지 않으려는 집단 간 대립이 발생한다. 변화하지 않고 안정을 추구하는 정치행정집단과 맞서 변화를 추구하는 행정개혁가 혹은 혁명가들은 현대시대보다 역사시대에 흔히 등장한다.

동양과 서양의 행정개혁을 살펴보면, 동·서양간의 시기적인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근대시대 이전에는 미국의 '독립선언문', 프랑스의 '인권선언', 조선시대 실학의 창시자 유형원의 '사회개혁안',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의 '사회개혁안' 등 국민의 권리의식이 일어나면서 자유, 평등에 대한 정치·행정개혁이 요구되었다. 근대시대 이후에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공산당선언', 일본의 '메이지 개혁정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호찌민의 '민족주의, 공산주의 개혁' 등 형평성, 배분성, 공공성, 합법성, 평등성 등을 요구하는 개혁과 의식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행정개혁들이 나타났다(김진아, 2020).

국가에서 공공의 문제와 사회적 요구를 해결해야 될 때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행정개혁이고, 이를 적극적이고 민감하게 이끄는 인물을 행정개혁가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朝鮮)'이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백성들의 삶을 위해 굳건한 사상적 신념을 담아 정치행정개혁을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였던 삼봉 정도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3. 기질과 성격에 대한 선행연구

인간의 행동유형은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 성격은 기질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기질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학자마다 척도를 개발하여 활동성, 정서성, 사회성, 공포, 좌절에 대한 분노반응, 활동수준, 긍정정서, 진정능력, 주의집중력, 활동수준, 접근-회피성, 반응의 한계, 규칙성, 주의전환성, 기분의 질이나 상태, 주의집중의 범위와 지속성, 적응성, 반응강도,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등의 구성요소를 측정할 수 있었다. 기질은 비교적 정서적인 요소를 측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격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학자마다 척도를 개발하여 표현특질, 원천특질, 외향-내향, 신경증, 우호성, 성실성, 개방성, 신경증-안정성, 충동통제-정신증, 허위성-사회적 욕망성, 외향적 사고형, 외향적 감정형, 외향적 감각형, 외향적 직관형, 내향적 사고형, 내향적 감정형, 내향적 감각형, 내향적 직관형,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성 등의 요소를 측정할 수 있었다(이현수·Eysenck, 1985; 김정택·심혜숙, 1995; 임지영·배윤진, 2015; Cattell & Eber, 1964; Thomas & Chess, 1977; Buss & Plomin, 1984; Costa & McCrae, 1992; Cloninger et al., 1994).

특별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요인이 있을 것이라 예측하게 된다. 기질과 성격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정신병리나 특정 장애군, 특정 변인에 미치는 영향연구들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재아동은 일반 학생들이나 규준집단과는 다른 기질과 성격적 특성이 있고, 특정 기질과 성격적 요인이 청소년의 정신병리와도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또한 기질과 성격이 성격장애군 뿐 아니라 정신과적 질환군과 연관성이 있음도 연구되었다. 기질과 성격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내재적, 외현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게 하고, 자녀들도 같은 양육방식이지만 기질과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받아들이며 성장한다(안경흡 외, 2003; 박주용·오현숙, 2005; 김상영 외, 2012; 황순택 외, 2015; 이은선 외, 2016).

인간의 성장은 어느 시점까지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 그 시기에 주어진 발달과업을 수행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인간의 발달단계를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Freud, S)는 만 18세까지 모든 것이 형성된다라며 심리성적발달단계를 제시하였고, 에릭슨(Erikson, A)은 사회적 영향요인의 중요성을 밝히며 노년기까지 각 단계별 인생과업을 중점으로 심리사회적발달단계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각기 연령대에 주어진 발달과업의 성취여부에 따른 병리적 후유증도 경고하였다. 기질과 성격, 환경적 요인들 간의 논쟁은 '천성 vs 육성'이란 주제로 결론이 있을 수 없는 끊이지 않는 쟁점이 된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기질은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으로 타고 난 것으로 일생동안 안정적이지만, 성격은 이 기질을 바탕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어지므로 일생동안 계속 발달할 수 있는 개인별 특성이다. Cloninger의 인성모델은 올포트(Allport)의 특질이론에서부터 캐텔(Cattell), 아이젱크(Eysenck), 그레이(Gray), 코스타와 맥그레이(Costa & McCrae)의 이론까지 생물학적 차원의 요인들에 근거를 두고 점차 확장되어 4가지 기질(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과 3가지 성격(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이수진 외, 2014; 김진아, 2020).

Jung(2016)은 인간의 의식층과 무의식층의 불균형을 측정하고 이들의 통합을 목적으로 인간의

내적 작용과 행동 간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Jung은 분석심리학을 통해 개인의 태도를 결정하는 에너지의 흐름(외향-내향)과 정신적 기능(감각-직관, 사고-감각)을 도출하여 인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를 확장하여 수 십년간 요인분석을 통해 Briggs & Myers는 에너지의 방향(외향-내향), 인식기능(감각-직관), 판단기능(사고-감정), 생활양식(판단-인식)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다(김정택·심혜숙, 2015; 김진아, 2020). TCI는 과학적인 접근으로 생물학적 인성모델을 근거하여 인간의 개인특질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MBTI는 비과학적인 접근으로 의식과 무의식층의 통합모델을 근거로 개인의 선호경향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적 요소들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접목하게 되면 한 개인의 삶, 생애의 결과물들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Ⅲ. 삼봉 정도전의 심리학적 분석

1. 삼봉의 행태분석

삼봉은 정치가, 학자, 예술가, 행정가, 혁명가, 개혁가, 사상가, 철학가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을 만큼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였다. 그는 경제력이나 권력을 갖추지 못한 향리·아전집안이었고, 늘 출신문제로 조정(朝廷)에는 발을 디디기조차 힘든 정치적 방해를 받았다. 나라의 실직(實職)을 맡은 후에도 오랜기간 유배와 정치낭인, 걸인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할 것만 같았던 그의 처지였으나, 조선건국의 일등개국공신이 되어 정권과 병권 모두를 장악하며 승승장구하였다. 하지만 이색과 정몽주 등 온건개혁파에게는 최악의 변절자로, 권문세족에게는 숙청대상의 존재로 견제를 받아오다가 57세 때 이방원의 기습공격을 받고 역모 죄로 참수되었다.

1) 시대적 배경

삼봉은 고려 28대 충혜왕 무렵인 1342년부터 34대 공양왕을 지나, 조선이 건국된 1398년까지 살았다. 그가 살던 시기는 고려시대 말기 상황이어서 나라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양반들은 자신의 실리(實利)추구에만 급급하였으며 불교의 폐단 또한 심각하였다. 그 당시 상황을 삼봉은 '삼봉집(三峯集)'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 첫째, 세상의 도(道)가 모두 가라앉은 총체적으로 혼란의 시대로 이 시기를 세도지강(世道之降)의 시대라 하였다. 둘째, 그러한 원인으로 관료들이 공(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私)를 충족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는 그들의 부패라 지적하였다. 셋째, 관료와 권신들의 사리사욕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하여 경제질서가 무너졌는데 가장 큰 원인을 토지제도의 문란으로 꼽았다. 넷째, 나라의 이념적 기반이었던 불교가 타락하여 난세(亂世)를 가져왔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삼봉은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을 생각하였고 그것은 유자의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실

질적이고 실천적인 개혁이라고 판단하였다(김진아, 2020 재인용).

상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성인기[2] 무렵은 백성들이 생계(生計)와 안위(安慰)는 전혀 보호받지 못 하였고, 금수(禽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시기였다.

2) 생애와 업적

1342년 충혜왕 3년, 영주에서 3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삼봉은 15, 16세 무렵 이색의 부와 벗이었던 삼봉의 부를 따라 개경으로 갔다. 그는 자연스럽게 이색 문하(門下)에서 공부를 하며 정몽주, 이숭인, 이존오 등과 뜻을 같이 하는 벗이 되었다. 1362년 공민왕 11년, 대과에 급제하여 첫 관직을 역임하고 28세가 되던 1370년, 백성들의 삶을 위해 고려의 정치와 행정의 폐단을 바로 잡으려고 이색, 정몽주, 이숭인 등과 함께 권문세족들과 대립하다가 유배를 가게 되었다. 동문들은 2년 정도 유배를 하였지만 정치계에서 미운 오리와 같았던 삼봉은 이후 10여년을 더 정치낭인, 걸인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과 함께 하며 가르치기와 어울리기를 좋아하던 성격 때문에 늘 그의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어디서든 제자들을 가르쳤다.

1383년 우왕 9년, 낭인생활 9년째에 그는 직접 함주막사 동북면도 지휘사 이성계를 찾아가 '함영 소나무에 제하다'를 지어 자신의 뜻을 내비치었다. 얼마 후 이성계의 힘을 입어 다시 조정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는 본격적인 정치·행정개혁을 도모하며 뜻을 펼쳤다. 우왕의 폐위 과정에서 그 동안 함께 개혁을 추진 해 오던 온건개혁파와 갈라서며 역성혁명파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었다. 당시 가장 파격적이고 대표적인 역성혁명파의 전제(田制)개혁을 삼봉이 주도하며 혁명을 준비하였다. 온건개혁파와 권문세족들의 표적이었던 삼봉은 그들과 대립하던 중 완강하고 강직한 성격 때문에 오히려 유배를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잠시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다.

1392년 삼봉 50세에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양위함으로 삼봉은 분의좌명개국공신으로 포상받아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 동판도평의사사사(同判都評議使司事), 판호조사(判戶曹事), 판삼사사(判三司事), 보문각태학사(寶文閣太學士), 지경연예문춘추관사(知經筵藝文春秋館事), 판의흥삼군부사(判義興三軍府事), 의흥친군위절제사(義興親軍衛節制使) 등 요직을 겸해 정권과 병권을 모두 쥐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삼봉은 명나라 주원장의 집요한 삼봉 숙청시도와 맞서며 요동정벌을 준비하는 동시에 나라의 법, 제도, 행정, 군사제도까지 현실에 적합하도록 직접 개혁을 주도하며 추진해 나갔다. 그러던 중 1398년 태조 7년, 삼봉만 56세 때에 이방원의 기습 공격을 받고 참수되었다. 사후에도 태종 이방원에 의해 삼봉은 폐서인이 되고 자손들은 금고(禁錮)에 처해졌다. 그러나, 태종 16년에 후손들은 복권된다. 고종 2년과

2) 정신분석학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8단계 삶의 주기를 근거로 한다. 유아기(~1세) 신뢰 vs 불신, 아동초기(1세~3세) 자율성 vs 수치심, 학령전기(3세~6세) 주도성 vs 죄책감, 학령기(6세~12세) 근면 vs 열등감, 청소년기(12세~18세) 자아정체감 vs 역할 혼미, 성인기(18세~35세) 친밀 vs 고립, 중장년기(35세~60세) 생산 vs 침체, 노년기(60세~) 통합 vs 절망(Corey, 2014)

고종 8년에는 삼봉도 대원군으로 복권되고 문헌시호가 추증된다.

삼봉이 저술한 대표적 저서 '삼봉집(三峯集)'은 총 1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2는 시,[3] 권3-4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글,[4] 권5는 불교의 윤회, 인륜, 자비, 화복에 대한 비판서,[5] 권6은 이(理)가 마음심(心)과 기(氣)를 타이른다는 내용과, 불교와 도교를 비판하고, 유교의 덕목과 성리학 이념 기술과 더불어 또 마음이 하늘에게 묻는 말과 하늘이 마음에게 답하는 글 형식의 철학서[6]이다. 권7은 군사훈련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인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고, 문서글인 습유(拾遺)[7]가 포함된다. 권8은 부록으로 삼봉이 기록한 글과 왕의 교서,[8] 권9～10은 나라의 통치체제를 정비 해 놓은 글,[9] 권11～12는 경제문감의 보완서,[10] 권13～14는 보위를 지키는 방법인 군주의 도리를 밝힌 정보위(正寶位), 국호(國號), 치전(治典), 부전(賦典), 예전(禮典), 정전(政典), 헌전(憲典), 공전(工典)를 각각 실질적 분야에 적용하여 폐단과 지침을 기록한 조선의 법전[11]이다. 이 외에도 그의 이념, 사상, 정서가 잘 나타난 경제론, 역사서, 병법서, 악사, 의서, 역산서, 시, 글 등인 경제의론(經濟議論), 감사요약(監司要約, 고려사(高麗史), 오행진출기도(五行陣出奇圖), 팔진36변도보(八陣三十六變道圖譜), 태을72국도(太乙七十二局圖) 강무도(講武圖), 진맥도결(診脈圖訣), 상명태을제산법(詳明太乙諸算法), 문덕곡(文德曲), 몽금척(夢金尺), 수보록(受寶籙), 납씨곡(納氏曲), 정동방곡(靖東方曲), 금남잡영(錦南雜詠), 금남잡제(錦南雜題)가 있다(정도전, 1977a; 1977b, 나중식, 2012; 조유식, 2014; 김진아, 2020에서 참고하여 생애와 업적의 내용을 재구성)

삼봉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의 업적은 첫째, 조선왕조의 규범이 될 '조선경국전', '감사요약', '경제문감', '경제문감별집' 등을 저술한 것이고 둘째, 도읍을 정하여 옮기는 사업을 주도하면서 궁전, 궁문, 도성문, 도성 내외의 방(方)의 이름 등 조선 창업의 전반적인 기반을 만든 것이다. 셋째, 군사제도와 병법을 개혁하고 요동전쟁을 준비하며 군사훈련법을 만들어 보급한 것이고 넷째, 문관이었지만 무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 군사, 시, 음악, 문학, 문화, 예법, 철학, 행

---

3) 오언고시(五言古詩), 부(賦), 오언절구(五言絶句), 칠언고시(七言古詩), 육언절구(六言絶句), 칠언절구(七言絶句), 칠언율시(七言律詩), 오언율시(五言律詩), 악장(樂章), 사(詞)

4) 서(序), 계(啓), 서(書), 전(箋), 소(疏), 제발(題跋), 설(說), 기(記), 책제(策題), 제문(祭文), 묘표(墓表), 행장(行狀), 전(傳), 명(銘), 찬(贊)

5) 불씨잡변(佛氏雜辨)

6) 심기리편(心氣理篇), 심문(心問)과 천답(天答)

7) 진법(陣法)은 총술(總述), 정진(正陣), 결진십오도(結陣什伍圖), 오행출진가(五行出陣歌), 기휘가(旗麾歌), 각경가(角警歌), 기병정병총찬(奇正總讚), 금고기휘총찬(金鼓旗麾總讚), 장수에 관하여, 사졸을 어루만지는 다섯 가지 은혜, 군사를 쓰는 여덟 가지, 세 가지 어두운 것, 세 가지 밝은 것, 다섯 가지 장점, 세 가지 사용하는 것, 네 가지 법, 적을 헤아려 승리를 거두는 네 가지 계책, 네 가지 공격하는 것(四擊), 세 가지 헤아리는 것, 세 가지 놓아두는 것, 다섯 가지 어지러운 것, 네 가지 정리된 것, 열한 가지 반드시 싸워야 할 때, 여섯 가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 공격하고 수비하는 세 가지 방법, 네 가지 공격하는 것(四攻), 다섯 가지 수비하는 것, 습유(拾遺).

8) 사실(事實), 교고문(教告文), 제현서술(諸賢叙敍述)

9) 경제문감(經濟文鑑)

10) 경제문감별집(經濟文鑑別集)

11)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정 모든 분야를 아울렀던 적극적인 활동을 꼽을 수 있다(김진아, 2020 재인용).

조선의 법전이라 말할 수 있는 '조선경국전'은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를 주창하는 삼봉의 국가경영사상이 나타나고 그 틀 아래서 행정사상은 유교적 통치이념과 나라와 백성들 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본(民本)과 애민(愛民)이 기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당시 삼봉의 개혁은 농민적 성격과 민생, 실용을 강조하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과 같은 맥락을 이룬다. 민생안정을 우선으로 생각한 만큼 민생안정이 곧 경제안정이라 판단하여 삼봉은 직접 병법을 만들고 가르치며 부국강병에도 힘을 기울였다.

〈표 1〉 삼봉의 행정개혁사상

국정운영목표	민생안정, 민본, 애민, 인정주의, 경제안정, 부국강병
통치이념	위민, 애민, 안민, 재상주의
행정이념	공정성(인정을 통해), 합법성(민본, 위민을 통해), 절약, 능률
공직윤리	공(公), 염(廉), 근(勤), 근(謹), 관료의 능력과 실적 중시. 공정과 합법을 강조

자료: 김진아(2020)의 재인용

2. 기질과 성격 및 심리학적 사례분석

1) TCI 검사 결과분석

〈표 2〉 삼봉의 TCI 기질 및 성격검사 결과분석

	TCI-RS 프로파일					
	척도	원점수	T점수	백분위	30 백분위그래프 70	
기질	자극추구(NS)	40	63	89		NS
	위험회피(HA)	9	25	0		HA
	사회적 민감성(RD)	47	55	71		RD
	인내력(P)	76	82	100		P
성격	자율성(SD)	70	73	99		SD
	연대감(C)	33	23	0		C
	자기초월(ST)	43	66	92		ST

자료: 김진아(2020)의 재인용

삼봉의 기질 프로파일은 NhR(HLH)유형, 성격 프로파일은 ScT(HLH)유형으로 나타났다. 기질 프로파일 하위요소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자극이나 모험을 추구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낯선 것이라도 열정적으로 탐색하는 기질은 매우 높으나, 충동적이지 않고 조직적이고 규칙과 규율이 있는 것을 선호하는 기질이 있다. 그래서 참고 견디며,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고 평소에 분노를 잘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위험하거나 부정적인 자극이 예상될 때 이를 회피하고 행동을 억제하는 기질이 매우 낮아서 예기불안이나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수줍음이 없어서 매우 활기가 넘치고 낙천적이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사회적 신호, 타인의 감정 등에 민감한 기질

이 높아서 정서적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에 약하거나 정서적 교류와 접촉을 좋아한다. 그러나 타인에 대해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기질이 있어서 비판이나 사회적 압력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떠한 보상이 없더라도 행동이나 의지를 꾸준히 유지하고 지속하는 기질이 매우 높아서 좌절이나 비판, 피로가 있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열정적일 수 있으며 완벽주의자의 모습을 보인다.

삼봉의 성격 프로파일 하위요소들을 살펴보면, 자기 스스로의 결정력, 조절력, 의지력이 매우 높아서 유능감이 높고 목적의식이 뚜렷하여 성숙하고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인다. 타인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성격이 매우 낮아서 관대하거나 우호적이지 못 하고 자신과 의견이나 가치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면이 강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타인을 도와주고 나누고 싶어하는 이타적인 모습도 보인다. 자신을 자연 속에 일부나 만물과 동일시하는 성격이 매우 높아서 개인적 욕심이 없고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현자(賢者)와 같은 모습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질과 성격을 바탕으로 삼봉은 정치낭인시절이나 실권(實權)을 가진 후에도 동일하게 자신이 뜻한 목표와 가치를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추진력과 대담함을 드러내었다. 그의 행동을 살펴보면 타인과 조화를 이루지 못 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매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창의적으로 일을 추진하였다. 삼봉의 삶은 전반적으로 물욕(物慾)이나 사심(私心) 없이 오로지 백성과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公)을 위한 삶을 살았다.

2) MBTI검사 결과분석

〈표 3〉 삼봉의 MBTI 성격검사 결과분석

선호분명도 범주	원점수	선호지표	선호지표	원점수	선호분명도 범주
매우 분명	20	외향 E	내향 I	1	
보통	19	감각 S	직관 N	7	
매우 분명	22	사고 T	감정 F	2	
보통	16	판단 J	인식 P	6	

	주기능	부기능	3차기능	열등기능	
심리적 기능	사고 T	감각 S	직관 N	감정 F	

자료: 김진아(2020)의 재인용

삼봉의 성격유형 프로파일은 ESTJ유형(외향적 사고형)으로 이런 유형은 행정가, 운영자, 사업가, 추진가로서 실용적, 사무적, 현실적,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삼봉의 성격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활발하게 일을 조직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있고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며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계획하고 결정할 때에는 현실적이고 확고한 사실에 바탕을 둔다. 이러한 성격적 요인으로 삼봉은 항상 사람들과 어울려 활동함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고 조선창업 과정과 조선개국 이후에도 일을 조직화하며 빠른 처리능력을 보였다. 항상 주도적인 리더의 모습으로 실용

적이고 현실성 있게 일을 진행하였다. 삼봉은 타인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한 목표의식과 냉철한 통찰력으로 국가행정의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행정개혁가의 모습을 보였다.

3) 심리학적 사례분석

삼봉은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선조(先祖) 때부터 아전·향리집안이었으나 삼봉의 부가 유일하게 국가 주요 관직에 올랐고 청백리에 등재되었다. 부는 물욕(物慾)이나 권력욕도 없었지만, 어려운 살림살이에 늘 사람들을 대접하고 어울려 술자리 하기를 즐기며 살았다. 삼봉 또한 부의 성격을 닮아서 살림살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대업(大業)에만 몰두하여 삼봉의 아내가 힘겹게 살림을 일구며 살아야만 하였다. 삼봉의 모는 노비집안 출신이었고 이러한 내력이 평생 삼봉의 걸림돌이 되었다. 첫 관직을 맡은 시기부터 삼봉이 사망할 때까지 늘 출신 문제가 공격거리로 이용되어서 삼봉의 콤플렉스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젊은 시절 삼봉은 관념론적인 성리학 속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학풍을 가르치는 이색의 문하생이었고,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던 이색문하생 신진사대부 벗들과 함께 배우고 토론하며 세상 보는 눈을 키워나갔다.

삼봉의 개인적인 강점은 높은 유능감과 효능감, 높은 지적수준과 이를 뒷받침하는 탁월한 말솜씨, 글솜씨, 표현력이다. 또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확고하여 자기 자신을 믿고 꾸준한 노력으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강점을 지닌다. 타인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감정도 잘 표현할 수 있으나, 칼 같은 단호함과 호불호가 분명하고 타협이나 절충을 하지 못하여 반대파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선천적으로 사람을 좋아하여 누구든 잘 어울릴 수 있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성격이지만 대인관계에서도 호불호가 매우 명확하여 평소 적(敵)을 만들 수 있고 자신에게도 심리적인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일상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 분위기 메이커와 같은 성격, 높은 학문적 지식과 현실적인 통찰력으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원을 가진다.

4) 전문가 자문

삼봉 정도전을 연구 대상으로 관련연구를 전문적으로 다 년간 연구해 온 전문가들과 검사도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연구방법의 타당도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총 4 회의 자문 과정으로써 첫 번째, 검사 적용과 해석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여 결과를 수렴하였다. 두 번째, 검사 문항 응답의 적절성을 자문하여 검증받았다. 세 번째, 검사결과분석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네 번째, 수정된 검사결과분석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여 검증받았다. 이를 통해, 검사도구 적용에 관한 사항, 검사문항의 응답근거로 부족한 사항, 문제가 될 수 있는 근거와 어휘선택 사항, 근거로 설득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사항, 검사 문항 응답 수치에 대한 재조정, 결과해석에 대한 타당성 등 삼봉의 MBTI검사 19문항, TCI 27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12)]

12) 전문가 구성은 A사 MBTI검사 담당자 1명, M사 TCI검사 담당자 1명, H연구원 수석연구원 1명, D대학교 교수 1명으로 구성되었다.

3. 심리학적 분석

삼봉의 행정개혁에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기질과 성격 및 심리학적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해 TCI 검사, MBTI 검사, 심리학적 사례분석 틀에 의해 평가·분석하였다. 그 결과, 삼봉은 NhR(HLH)기질유형과 ScT(HLH)성격유형, ESTJ(외향적 사고형)성격유형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심리학적 사례분석의 내용을 근거로 한 심리학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삼봉은 대대로 기득권층 집안도 아니고 첫 관직을 담당할 때부터 집안의 약점을 들춰지며 업신여김을 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집안에서 처음으로 실직(實職)에 오른 삼봉의 부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양반 가문의 동기들과 삼봉은 같은 일을 해서, 같은 유배를 당하지만 동기들의 짧은 유배 후 복직과는 너무도 다르게 삼봉은 오랜 시간을 걸인처럼 보내야만 하였다. 같은 개혁의 뜻을 도모해 온 온건개혁파였지만 권문세족의 사대부적 관점을 버리지 못 하고 결국 파(派)가 나누어지면서 오랜 스승과 오랜 벗들이 삼봉의 집안 약점을 들추며 강한 공격을 하였다. 이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뢰가 더욱 무너졌을 것이고, 자신을 지키고자하는 강직함은 더욱 강해지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삼봉은 타고난 높은 사회적 민감성이 삶을 살면서 겪은 심리적 상처들 때문에 아주 낮은 연대감으로 형성되어졌지만 선천적인 기질은 바뀔 수 없어서 사적인 관계나 힘이 없는 백성을 대하여는 정서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높은 기민함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민감성은 애민(愛民)을 품게 만들었다. 삼봉의 삶 속에서 보고 겪었던 백성의 고통, 하늘의 대행자인 왕과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하는 소수의 기득권층이 무위도식하며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폐단은 하늘의 이치(理致)를 거스르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삼봉은 관념론적인 성리학에서 중요한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지만 실제 현실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맹자'에서 깨달았다.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민본(民本)사상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이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논리적인 것을 더 선호하는 감각과 사고를 지닌 그의 성격 때문일 것이다. 다방면으로 지식이 많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는 실질적으로 민생안정은 나라가 부강해야 가능하므로 병권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여 부국강병에 힘썼다. 이러한 업적은 안민(安民)사상으로 이어진다.

삼봉이 생각하는 재상의 역할은 하늘의 대행자인 왕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 역할이므로 재상의 역할을 강조하며 관료중심 재상주의를 제창하였다. 관료중심제 도입이나 그의 저서인 경제문감, 조선경국전 등의 내용을 보면 규칙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는 삼봉의 성격이 드러난다. 정확한 역할분담과 정확한 규칙은 매우 합리적인 국가운영방침이라 여겼다. 삼봉이 정치, 사회, 경제, 군사, 시, 음악, 문화, 예법, 철학, 행정 모든 분야를 직접 재정비하고 특히 백성의 삶과 관련된 실무들을 총괄하여 실생활에 유용하도록 힘쓴 것은 후기 실학파와 같은 맥락을 보여주는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이었다. 이는 매우 뛰어난 합리적 안목과 지칠 줄 모르는 연구, 천재적 재능, 두려움 없는 도전과 분명한 목적의식, 자신에 대한 믿음과 만물에 대한 수용성 등 삼봉 내면의 힘에 기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Ⅳ. 논의 및 결론

조선시대 행정개혁가 삼봉 정도전은 수 백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의 업적과 행정개혁, 사상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연구들만으로 삼봉이란 인물에 대해 깊이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적과 업적을 들여다보면 삼봉의 사상을 알 수 있지만 여기에서 그치게 된다. 인간은 정서, 사고, 행동 등 여러 영역의 복합체이기에 의식적인 영역과 함께 무의식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는 조선시대 행정개혁가 삼봉의 행적과 행정개혁에 기반이 되는 그의 심리학적 요인들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문헌자료를 질적 분석하여 표준화된 기질검사와 성격검사인 TCI검사, MBTI검사, 심리학적 사례분석틀에 적용하였다.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전문가 자문을 4차례에 걸쳐 의뢰하여 검증받았다. 연구결과, 삼봉이 지닌 NhR(HLH)기질유형, ScT(HLH) 성격유형, ESTJ(외향적 사고형)성격유형과 삶의 경험 즉 환경적 요인을 토대로 행정개혁사상인 민본, 애민, 안민사상, 재상주의가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삼봉은 극심한 부패로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고려를 패(敗)하고 '조선'을 창업하였으며 조선왕조 규범이 될 '조선경국전', '감사요약', '경제문감', '경제문감별집' 등을 저술하였다. 조선개국 후 도시의 전반적인 행정기틀을 직접 재정비하였고, 군사제도와 병법을 개혁하는 등 문관이었지만 무관의 역할까지도 담당하며 부국강병에 힘을 썼다. 이렇듯 정치, 사회, 경제, 군사, 시, 음악, 문학, 문화, 예법, 철학, 행정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행정개혁을 이루어나갈 수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토대로 미래 한국사회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삼봉은 개혁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려를 결단력 있게 정리하고, 유교사상에 입각해서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조선을 창업하였으나, 그 뜻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 하고 태종 이방원의 기습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 포은 정몽주와 삼봉은 서로 아끼는 선후배이고, 떨어져 있을 땐 그리워 눈물이 보이던 오랜 벗이자 정치적 동료였다. 하지만 정치적 노선이 달라지자 적이 되어버렸고 이색과 함께 포은은 삼봉의 치명적인 치부까지 들추며 삼봉을 제거하려 하였다. 포은은 온건개혁파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중립노선에 서서 고민을 하였으나 결국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개혁을 받아들이지 못 하였던 것이다. 그도 역시 태종 이방원에 의해 기습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 결국 원수가 되어 다른 길을 갔지만 삼봉과 포은은 죽음까지도 공통점이 있어서 이 둘의 관계는 언제나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삼봉, 태종, 포은은 서로 각자의 신념대로 최선을 다 했을 뿐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선 제거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그들 각자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고,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가 달랐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랐다. 또한 나라를 위하는 사상과 이념이 달랐고,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관계의 방식이 달랐으며, 삶의 환경과 자신의 역량이 달랐다.

현대사회에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메말라가는 추세이지만 인간은 지극히 사회적 동물이기에 '너와 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삼봉과 포은은 동일한 학풍을 공부하였고, 동일하게 국가행정개혁의 뜻을 키워나갔던 오랜 벗이자 누구보다 아꼈던 동료였다. 그러나 서로 반

대의 길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의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비교해보면 충분히 설명가능하다.

조선시대 행정개혁가들 중에서도 조선을 창업한 장량과 같은 인물인 삼봉이 그 뜻을 다 펼치지 못 하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삼봉이 계획하고 추진했던 많은 국가행정과 국가정책들은 그 시대에는 생각지도 못 한 혁신적이고 앞선 내용들이었다. 현실적으로 정치적 힘이나 재력조차 없었던 삼봉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대표적 인물일 것이다. 그의 끈기와 인내, 천재성, 다방면으로 뛰어난 지적 능력과 재능, 명확한 논리에 근거한 통찰력과 추진력, 세상만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정신세계, 어디서든 위축되지 않는 패기와 호탕하고 털털한 성격들은 한 나라의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는 요인들을 지녔다. 반면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 일을 하지 못 하고 독단적이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성과 지나치게 규칙을 중시하는 단호함은 타인과 함께 마음을 맞추어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삼봉을 기질과 성격, 심리학적 분석을 함에 따라 김진아(2020)는 '미래지향적 행정개혁사상가', '냉철한 카리스마'라 명명하였다. 즉 삼봉을 '혁신적이고, 냉철한 카리스마적 리더'로 표현할 수 있다.

Conger & Kanungo(1987)는 '카리스마적 리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탁월한 비전을 지녔고, 개인(자신)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며, 관습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여 이행할 수 있다. 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아랫사람들을 가르치며 아랫사람이 자신감을 가지도록 이끌 수 있다. 개인(자신)의 권력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을 꼽았다. 삼봉의 행적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발견하게 된다. 일에 있어서 지나치게 '냉혈한'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논리적인 강직함과 단호함이 삼봉에게는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어기제였을 것이다. 삼봉의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삶의 환경이 삼봉을 혁신적인 카리스마적 리더로 성장시킨 반면, 타인과 타협하지 못 하고 독단적인 독불장군과 칼같이 냉철한으로 성장시키기도 하였다. 삼봉의 시대적 배경이나 개인의 환경적 요인이 달랐다면 삼봉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고,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을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신념과 사상을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 환경, 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성장과정에 있고, 우리의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갈 유·아동·청소년들이 타인과 더불어 연대할 수 있는 인성과 심리적 요인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책임은 가정과 사회가 함께 지고 있다. 또한 현대시대의 행정에도 삼봉이 추구하던 민본, 애민, 안민사상은 여전히 필요한 사상이지만 실현되기 힘든 혁신적인 내용일 뿐이라 사료된다. 단지 희망이고 이상적인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한국 사회가 나라의 외적인 성장과 함께 국민의 내적 역량까지도 성장시킬 수 있는 국가정책을 심도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상영·송승연·정선용·김종우. (2012). 기질 및 성격검사 (TCI) 에 나타난 한방신경정신과 환자의 전반적특성 및 화병 환자의 특성.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3(4), 107-121.

김진아. (2020). 조선시대행정개혁사상가들의 기질과 성격 및 심리학적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택·심혜숙. (1995). 「MMTIC와 어린이 및 청소년 이해」.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김정택·심혜숙. (2015).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성」. 서울: 어세스타.

나중식. (2012). 「한국행정사상사」. 서울경제경영: 서울.

민병배·오현숙·이주영. (2007). 「기질 및 성격 검사 매뉴얼」. 서울: 마음사랑.

박주용·오현숙. (2005). 기질 및 성격 검사에서 밝혀진 영재기관 영재의 특성이 영재 선발에 주는 시사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143-156.

안경흡·이수진·최현수·윤숙경. (2003). 원저 (原著): Cloninger 의 생물사회학적 기질-성격 이론과 청소년기의 정신병리. 「정신병리학」, 12(1), 77-84.

윤가현·김문수·김정희·남기덕·도경수·박권생·박영호·손영숙·송인섭·심응철·유승협·윤영화·이철원·이현진·조한익·천성문. (2008). 「심리학의 이해(개정2판)」. 서울: 학지사.

이수진·Cloninger. C. R.·Cloninger. K. M.·채한. (2014). 기질 및 성격검사의 통합의학적 활용.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5(3), 213-224.

이은선·성기혜·김근향. (2016). 우울장애 환자군의 기질 및 성격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1), 287-297.

이현수·Eysenck S. B. G. (1985). 아이젱크의 성격차원에 (性格次元) 관한 연구-한국과 영국.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5(1), 51-66.

임지영·배윤진. (2015). 한국판 Rothbart 유아용 기질 척도(Children's BehaviorQuestionnaire)의 타당화. 「한국생활과학회지」, 24(4), 477-497.

정도전. (1977a).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삼봉집 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정도전. (1977b).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삼봉집 I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조유식. (2014). 「정도전의 위한 변명」. 서울: 휴머니스트.

최창호·하미승. (2012). 「새 행정학」. 서울: 삼영사.

황순택·조혜선·박미정·이주영. (2015). 성격장애와 기질 및 성격특질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2), 1-13.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Buss, A. H., & Plomin, R. (1984a).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Buss, A. H., & Plomin, R. (1984b). Theory and measurement of EAS.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84*, 104.

Cattell, R. B., & Eber, H. W. (1964). *Sixteen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 Institute for

Personality and Ability Testing.

Cloninger, C. R., Przybeck, T. R., Svrakic, D. M., & Wetzel, R. D.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its development and use. St, Louis, MO: Center for Psychobiology of Personality, Washington University.

Conger, J. A., & Kanungo, R. N. (1987). Toward a behavioral theory of charismatic leadership in organizational setting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2*(4), 637-647.

Corey, G. (2014).「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9판」. 조현준 조현재, 문지혜, 이근배, 홍영근 공역. 서울: CENGAGE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th ed)*: Belmont: Brooks/Cole Cengage Learning, 2013.

Costa, P. T., & McCrae, R. R. (1992). *Neo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NEO PI-R).*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Jung, C. G. (2016). *Psychological types*. New York, NY: Routledge. Taylor & Francis.

Rothbart, M. K., & Derryberry, D. (1981).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In M. E. Lamb & A. L. Brown (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1, 37-86. Hillsdals, NJ: Erlbaum.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uner/Mazel.

김진아(金眞我): 동아대학교 대학원에서 의료상담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김진아 의료상담심리 발달재활연구소 소장이며, 심리치료사, 임상심리사로 활동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심리검사, 발달재활 등이다(wildring9@naver.com).

김형빈(金亨彬): 동아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지방자치 및 도시 정책, 행정사상 등이다(hbkim@dau.ac.kr).

〈논문접수일: 2020. 10. 10 / 심사개시일: 2020. 10. 12 / 심사완료일: 2020. 11. 10〉

Abstract

An Analysis on Psychological Factors that are the Basis of Sambong's Administrative Reform

Kim, Jin-A

Kim, Hyung-Bin

In this study, Sambong Jeong Dojeon, an Administrative Reformer in the Joseon Dynasty was the subject of study. It aimed at analyzing Temperament, Character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order to find out what factors within Sambong could be the basis of his Administrative Reform since he was an Administrative Reformer who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the law and system as well as a founding contributor of Joseon.

Therefore, in this study, TCI Temperament and Character Test, MBTI Personality Type Test, and Psychological Case Analysis Framework were us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data, and the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a verification process by consulting exper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dministrative Reform ideas of Ae-min, Min-bon and An-min which were based on th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Sambong and the psychological factors that were based on those Administrative Reform were identified.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could be gained based on this.

Key Words: Jeong Dojeon, Administrative Reformer, Temperament, Character, Psychological Analysis